의약분업					번호: III - B - 7
제 목	국문	모의 환자의 증상호소 및 투약요구에 대한 약국의 반응양상			
	영문	REACTIONS OF PHARMACIES TO THE SYMPTOM ADDRESSING OF MOCK PATIEN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고광욱[1], 장세권[2], 박시운[2] 1) 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 및 2) 한국누가회 밝은의료사회를 위한 누가들의 모임			
	영문	Kwangwook Koh[1], Sekweon Jang[2], Siwoon Park[2]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Medical College and 2) Korean Christian Medical Fellowship			
분 야	보건관리 의약분업	발 표 자	고광욱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09월				

1. 연구목적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에서 의약분업 이후의 임의조제실태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조사들은 2000년말이라는 특정시기에 집중되었거나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약사의 반응모형을 상정하고 임의조제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통합시) 지역, 농촌지역(군지역)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무작위추출법으로 대상 약국을 선전후 모의 환자가 직접 방문조사함.

3. 연구결과

명확히 법적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 판매 혹은 조제는 감소한 반면 일반의약품의 임의조제 관행은 여전히 상존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사 약사간의 협력, 즉 진료 권유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반응 유형(별표 참조)에서 모의환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처음부터 즉각 약 복용을 권하며 약을 판매한 경우(반응 4)가 196개 약국중 95개소로 48.5%를 차지하였고 간단한 문진후에 약복용을 권유한 경우(반응 23)가 87개소(44.4%)로 이상의 두가지 경우가 전체 반응의 92.9%를 차지하였는데 반응 23은 대도시 지역에서 전체 반응의 64.8%를 차지하여 중소도시(19.0%) 및 농촌지역(22.9%)에서 보다 현저히 많았던 반면 반응 4는 중소도시(71.4%) 및 농촌지역(70.8%)에서 대도시 지역(29.5%)에서 보다 현저히 많았다.

4. 고찰

본 조사의 결과 본 조사지역 모집단 약국들에서 임의조제의 관행은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의조제에서 환자측 요인보다는 약사측 요인이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반응유형 4, 23)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문의약품의 조제는 의약분업 초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임의조제(판매)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의약품 조제의 경우 과거에 비해 소분 판매보다는 통약 판매가 늘었으며, 전체적으로 임의조제의 비율은 상승한 반면 병의원 진료 권유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의 통약 판매라는 새로운 형태의 임의조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반면 병의원 진료 권유율은 오히려 감소한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약 판매의 경우 약사법 위반여부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본 조사의 시나리오와 같이 설사 환자의 경우에는 임의로 투약할 경우에 증세의 악화 뿐 아니라 전염성 질환의 발견에도 지장을 주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병의원이용의 불편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가 왜곡되어 감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의약분업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의약품 판매가 또다른 심각한 의료행태의 왜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국민의 의료이용의 편이성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의사와 약사의 상호 직능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및 동반자적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